

# 李朝墓誌數例

崔 夢 龍

## I

지난번 全南大學校 博物館과 光州東信高等學校 所藏의 李朝時代 墓誌 八例를 調査해 銘文、墓誌의 形成과 함께 被葬者에 對한 紹介를 간략하게 하여둔 적이 있다. ①

그後 全南地方에서 七例의 墓誌를 다시 實見할 수 있어 여기에 또 그들의 형식과 銘文을 紹介해 두고자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調査·報告된 李朝時代 墓誌는 壺形、<sup>②</sup> 林寬宣墓誌(天接形、一八六八年)、<sup>③</sup> 安宗茂의 白磁墓誌(一七六一年 圓筒形)、<sup>④</sup> 金在仁、<sup>⑤</sup> 金景漢의 墓誌(一九〇年初 杯形) ⑥ 等 전체 二〇餘例 内外에 不過하여 李朝墓誌의 形式을 論하기에는 아직 資料가 不足한 實情이다.

따라서 筆者는 李朝時代의 墓誌에 關心을 두어 調査되는대로 묶어一括로 紹介해 두고자 하며, 앞으로 資料가 많이 모이게 되면 그때가서 時代上에 나타나는 型式과 編年을 細分해서 論하고자 한다.

## II

여기에 紹介할 墓誌는 七例로 그들은 다음과 같다.

- (一) 王度會墓誌(紙) 一六三九年(仁祖 一七年)
- (二) 尹孝孫 母親 光州鄭氏 墓誌(鐵書文白磁 一四八七年 成宗 一八年)
- (三) 高宰傑墓誌(硯床形盆, 一九二一年)

- (四) 李仁秀墓誌(盒形 一八七三年 高宗 三〇年)
- (五) 權重銓墓誌(方形 一八七七年 高宗 一四年)
- (六) 金以礪墓誌(末角方形 一五五三年 明宗 八年)
- (七) 林震範과 夫人 全州李氏 合葬墓誌(末角方形、一八八三年 高宗 二〇年)

### (一) 王度會墓誌

이 墓誌는 一九七〇年 五月 光州市 雲南洞(舊 日新部落)에서 李朝時代의 典型的인 墓制의 하나인 灰隔差에서 韓紙위에 梵字가 拓影된 符籍 二帳、靑銅製 수저 二點과 함께 出土되어 그곳 土地의 主人인 閔泳岐氏에 依해 全南大 博物館에 寄贈된 것인데、<sup>⑦</sup> 縱 六八·五cm 橫 五一cm의 純白色의 韓紙에 먹으로 써 놓았다. (圖 一)

墓誌의 內容은、『全羅光山黃界里<sup>⑧</sup> 虬山接右所志□□矣、身二無同生無子息無妻子無族類之身、□□王度會……□□、崇禎十二年 三月 日所志』라 되어 있어 王度會의 墓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被葬者는 家族이나 親族이 전혀 없는 子子單身의 孤兒로서 死後洞里人의 厚意로 庚宅이나마 마련된 것이며、이 墓誌는 불쌍한 처지에 있던 被葬者의 略傳을 그렇게나마 적고 있다.

그리고 이 墓誌가 만들어진 年代는 崇禎十二年 乙卯(李朝 仁祖 一七年)即 西紀 一六三九年인데、이로써 當時 身分이 낮은 또는 불쌍한 사람의 葬禮에 石製나 磁器 代身 費用이 적게 드는 韓紙를 擇하여 墓誌로 使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二) 尹孝孫 母親 光州鄭氏 墓誌

이것은 求禮郡 山東面 梨坪里 旺帖山 尹氏 葬山에 있는 文孝公 尹孝孫(一四三一—一五〇三)<sup>⑨</sup>의 母親인 光州鄭氏의 墓誌인데、一九七五年 五月 十一日 墓 앞의 整地工事時 잠깐 出土되었다가 다시 그곳에 묻혀졌다.



圖 2. 尹孝孫 母親 光州鄭氏墓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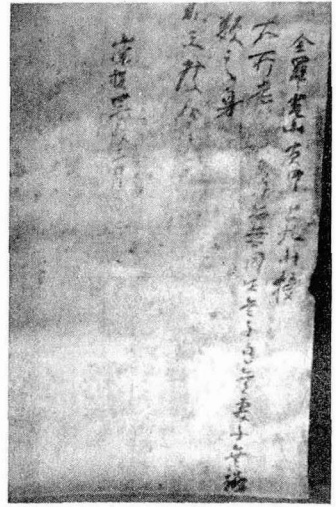


圖 1. 玉度會墓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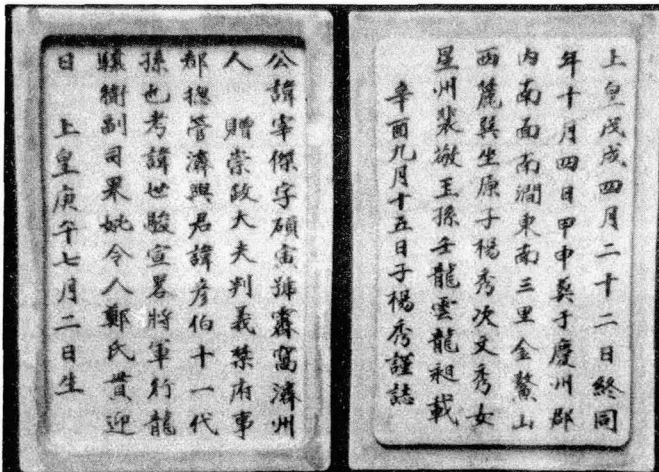


圖 4. 高宰傑墓誌(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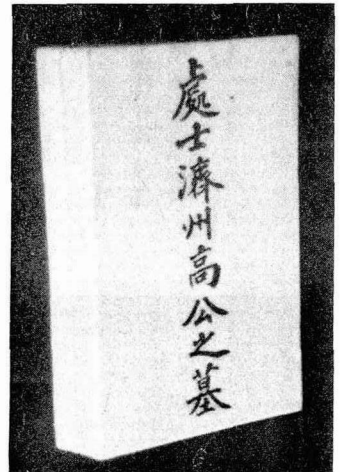


圖 3. 最宰傑墓誌(外)

이 墓誌는 長方形板 위에 鐵書<sup>①</sup>로 글을 쓴, 成宗以後에만 보이는 鐵書文墓誌<sup>②</sup>로 그 위에 釉藥을 발라 구어 만든 白磁墓誌라 할 수 있으며(圖一) 規模는 가로三四cm, 세로二八cm, 두께二cm이다.

그런데 글은 前面에 長方形의 區劃線을 긋고 그 안에 써 놓았으며, 右側 끝에 「誌石底」라 되어 있다. 寫眞만 찍고 即時 다시 문혔기 때문에 本文은 全部 記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墓誌는 貞夫人으로 追贈된 光州鄭氏의 墓誌이고, 그 夫人은 永樂 甲午(二四一四)에 태어나서 成化三年 丁未年(二四八七)에 八四歲를 一期로 生을 마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해는 彼女の 長男인 尹孝孫이 五五歲일 때이다.

(三) 高宰傑墓誌

이것은 草野에 묻혀 아무런 벉슬도 하지 않은 處士 高宰傑의 墓誌로서, 形態는 凹凸狀이며, 가로一五·三cm, 세로一一·三cm 두께一·三cm로 長方形板이 有蓋盒모양二枚一組가 되는 硯床形의 特異한 墓誌이다.

墓誌는 表面에 處士濟州高公之墓라 되어 있고, 또二枚를 열면 안쪽에 써여 있는데 초벌구이때 먹으로 內容을 쓰고 釉藥을 발라 구운 李朝時의 傳統을 지닌 白磁라 할 수 있겠다.

墓誌銘 全文은 다음과 같다. (圖四)

公諱宰傑字碩寅號霽窩濟州人 贈崇政大夫判義禁府事 都摠管濟興君諱彥伯十一代孫也考諱世駿宜略將軍行龍驍衛副司果妣令人鄭氏貫迎日 上皇庚午七月二日生。 上皇戊戌四月二十日終同 年十月四日甲申葬于慶州郡 內南面南澗東南三里金鰲山 西麓巽坐原子楊秀次文秀女 星州裴敬玉孫王龍雲龍昶載 辛酉九月十五日子楊秀謹誌

그런데 이 墓誌銘에 依하면 處士 高宰傑은 字는 碩寅、號는 霽窩、本貫이 濟州로써 一六〇四年 宣武功臣으로 濟興君에 封함을 받은 高彥伯 (一六〇九)의 十一代孫으로 純祖 一〇年(一八一〇年)에 태어나서 大韓帝國 二年(一八九八年)에 八九歲를 一期로 몰하였는데 葬地는 慶州郡 內南面 南澗三里 金鰲山이다.

그리고 이 墓誌는 長男 高楊秀가 辛酉 九月에 만들었는데 慶州는 一八九五年 以後에 처음 慶州郡이란 郡名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아 一九二一年 辛酉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墓誌는 高宰傑의 死後 一三年 後이며 韓日合邦 以後 一二年이 지난 때의 것이다. 따라서 이 墓誌는 엄밀한 의미에서 李朝時代의 墓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푸른색이 도는 白磁로서 李朝白磁墓誌의 마지막 계통의 作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하겠다.

(四) 李仁秀墓誌

이 墓誌도 前者 高宰傑墓誌와 같은 有蓋盒形의 二枚一組의 長方形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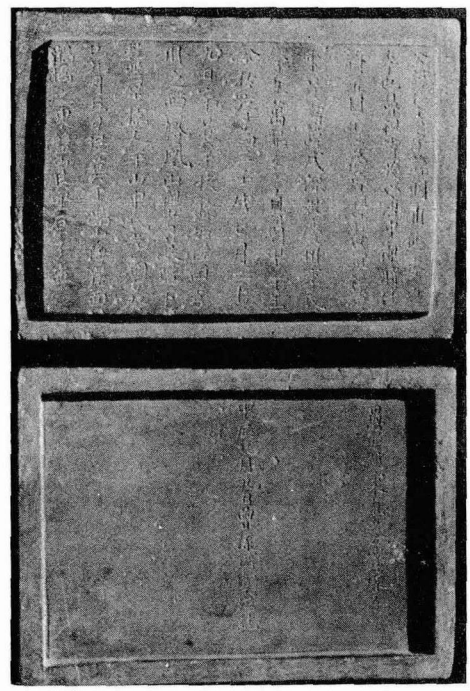


圖 5. 李仁秀墓誌



圖 6. 權重鉉墓誌

凸板으로 된 것인데 硯床形이 아니고, 石製 粘板岩(오석)인 점이 다르다. (圖五)

크기는 가로 二四·一cm, 세로 三三·三cm, 두께 두께의 합이 七·二cm이다.

墓誌銘은 凸狀의 板에 陰刻文으로 새겨져 있다.

公諱仁秀字諱明甫延安之

李也鼻祖諱茂以唐中郎將仕

新羅封延安伯曾祖諱世誼祖諱

東茂考諱成源妣慶州李氏

學生萬龍女眞廟甲午生

公於序爲三壬戌七月二十

九日卒葬于扶餘加佐面秀

川之西鳳凰山祖考墓階下

乾坐原孺人平山申氏光翰女、癸

巳九月五日歿葬于鳴山海岸面

鵲橋之東盤山良坐原子孟

그리고 凹의 板에도 前者에서 계속되어 『愚取趙秉直之豐壕人 甲長九

月日曾孫琮宰泣誌』로 끝맺고 있다.

그런데 銘文에 依해 李仁秀는 字는 明甫, 本貫은 延安。로 純祖 임금

이 昇遐한 해인 一八三四年에 태어나서, 一八六二年(哲宗 十三年)에 二

九歲로 沃折했는데, 葬地는 忠南 扶餘 加佐面 秀川의 西峯 鳳凰山이다.

그리고 이 墓誌가 만들어진 것은 公의 曾孫인 李琮宰에 依한 것이며,

그때는 一九〇四年(光武 八)이다. 따라서 이 墓誌는 李朝 末期의 것이

라 할 수 있겠다.

### 五、權重銓墓誌

이 墓誌는 잘 물갈이한 花崗岩의 側面과 前面에 半草書體로 陰刻한

權重銓墓誌이다. (圖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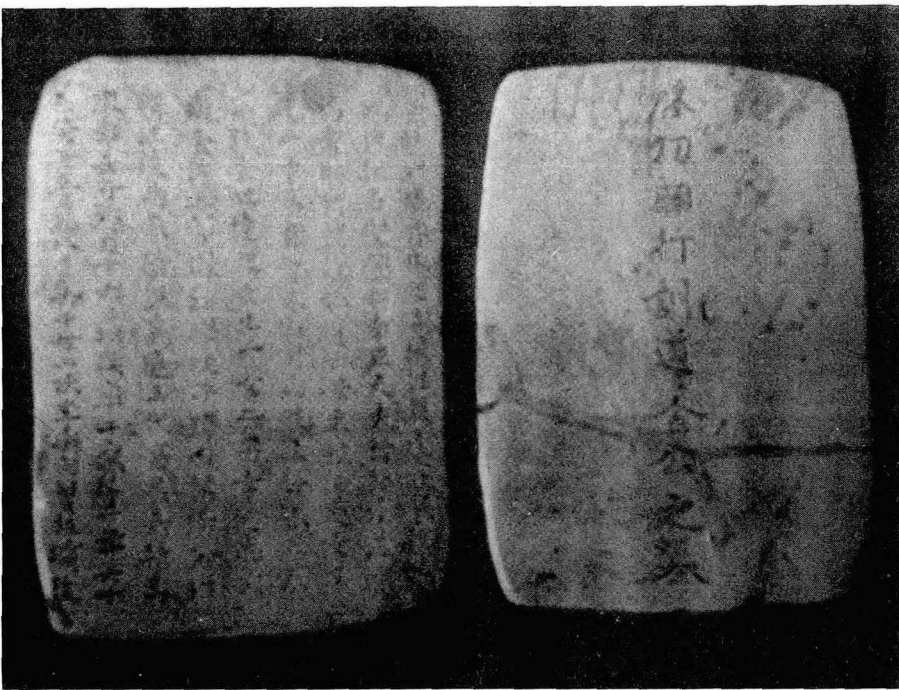


圖 7. 金 以 礪 墓 誌

誌石의 形態는 가로 十四·三cm, 세로 二十一·五cm의 長方形이지만, 側面은 작은곳이 五cm, 最大厚 五·二cm로 가운데가 약간 배가 부르다.

이 墓誌의 주인공은 權重銓은 安東權氏로서, 高麗初 三師의 하나인 太師 權幸<sup>㉞</sup>의 後孫으로 字는 而遠, 號는 逸溪인데, 純祖四年(一八〇四)에 태어나서 高宗 十四年(一八七七)에 七四歲로 卒하였는데 生前에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 墓誌의 製作年代도 一八七七年으로 추측된다.

墓誌銘은 다음과 같다.

側面·(右) 口儒人眞城李氏(全庄牙·谷乙坐)

(左) 逸溪先生權公墓誌

前面·公諱重銓字而遠太師諱

幸之孫考諱度釋妣目峰

崔氏瓚之女純廟甲子生

公天姿玉雪愷賴珍人

早有重望不侍天壽時人

背面·愷之幸丁丑全

### 六、金以礪墓誌

이 墓誌는 末角方形으로 된 二枚의 白磁誌石으로 되어 있는데 前面에 丹 釉藥이 발려져 있다.

크기를 보면 모두 가로 十八·五cm, 세로 二五cm로 같은데, 두께는 各各 二·八과 三cm이며 側面에서 보면 礪石과 같이 가운데가 휘어져 있다. 이는 아마 구울때 휘어진 모양이다. (圖七)

이 墓誌의 主人公은 金以礪인데, 그는 本貫은 江陵, 字는 成之로 成化二十三年(成宗 十八年, 西紀一四八八年)에 태어나서, 嘉靖三十一年(明宗 七年, 西紀 一五五二年)에 六五歲로 卒하였는데, 生前의 벼슬은 前面에 나와 있는 『啓功即訓導金公之墓』라는 陰刻文으로 보아 約九品の 末官末職의 訓導<sup>㉞</sup>이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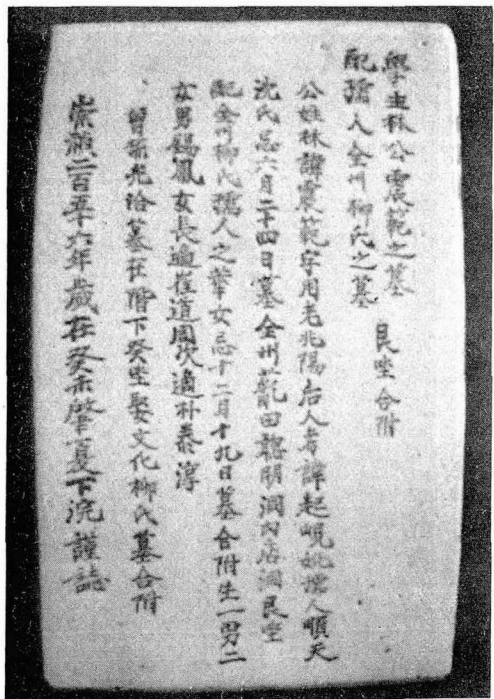


圖 8. 林震範墓誌

그런데 이 墓誌는 金公의 死後 一年뒤인 一五五三年(明宗 八年)이며 葬地는 母山으로 되어 있는데, 江陵인지는 確實치 않다. 그러나 이 墓誌는 製作年代가 뚜렷한 壬辰亂 前의 것으로 重要하다 하겠다.

陰刻된 墓誌銘은 아래와 같다.

公諱以礪字成之 玉姓江陵金氏周元君  
之後祖石堅登科奉正大夫行銀溪道察  
訪考黼行教授娠進士女安東權伸之女成  
化二十三年丁未五月丙辰生公娠恭奉  
江陵金幸達之女生一女二男女適忠義  
衛金斤長子璫幼學次子玠內禁衛公橫  
城江陵兩家藏鉅萬連三代富居嘉靖三十  
一年壬子六月十六日以疾卒于茅享年六十

六癸丑正月初八月葬于母山坎坐商向曾祖墳後

七、林震範의 夫婦合葬墓誌

이 墓誌는 土靑으로 墓誌銘을 쓴 靑華白磁로서, 林震範과 그의 婦人인 全州柳氏의 夫婦合葬墓에 對한 墓誌인데 가로 十六·三cm、세로 二五·七cm의 一枚의 末角形板으로 되어 있으며, 側面은 두께 二·三cm로 써 前者와 같이 구울 때 열을 받아서 그런지 휘어져 있다. (圖八)

이 墓誌의 主人公인 林震範은 字는 用老인데 墓誌銘만 가지고는 生設年代를 알 수 없으며 林公 自身도 生前에 孺人으로만 지냈지 별다른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모양이며, 슬하에 一男二女만 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墓誌銘의 제일 끝부분에 『崇禎二百五十六年歲在癸未肇夏下浣謹誌』라 써어진 것으로 보아, 이 墓誌가 一八八三年(高宗 一〇年)에 만 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墓誌銘 全文은 다음과 같다.

學生 林公震範之墓 艮坐合附

配孺人全州柳氏之墓

公姓 林諱 震範字 用老 北陽 后人 考諱 起峴 妣 孺人 順天

沈氏 忌 六月二十四日 墓 全州 亂田 聰明 洞內 店 洞 良坐

配 全州 柳氏 孺人之 華女 忌 十二月十九日 墓 合附 生 一男 二

女 男 錫 鳳 女 長 適 崔 道 周 次 適 朴 泰 淳

曾孫 光 洽 墓 在 階 下 癸 坐 娶 文 化 柳 氏 墓 合 附

崇禎 二百五十六年 歲 在 癸 未 肇 夏 下 浣 謹 誌

III

以上 살펴본 墓誌 七例는 모두 李朝時代의 것으로, 그 중 高宰傑 墓誌는 時代가 늦은 日帝때 것이다. 그러나 陶磁로 보아 李朝時代末의 傳統을 지닌 白磁로 李朝時代의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하겠다. 墓誌의 形式으로 보면 韓紙에서 벼루, 長方形 硯床形 등 多樣하나 이제까지 李朝

表

〈李朝墓誌分析表〉

	墓誌 主人公	本 貫	職 位	形 態	質	規 模	製造年代	出土地
1	王 度 會			方 形	韓 紙	68.5×51cm	1639	光州
2	尹 孝 孫 母 親 氏 鄭	光州	追 贈 貞 夫 人	長 方 形	鐵 畫 文 磁 白 磁	34×28cm 두께 2cm	1487	求禮
3	高 宰 傑	濟州		硯 床 形 (有 蓋 盒 形)	白 磁	22.3×15.3cm (2枚)	1921	慶州
4	李 仁 秀	延安		長 方 形 (北 阜 形)	粘板岩	37.3×24.1cm 두께 7.2cm	1904	扶餘
5	權 重 銓	安東		長 方 形	花崗岩	14.3×21.5cm 두께 5.2cm	1877	
6	金 以 礪	江陵	訓導	末 角 方 形	白 磁	18.5×25cm 두께 2.8~3cm (二枚)	1553	江陵
7	林 震 範 斗 柳 氏	文化		末 角 方 形	靑 華 白 磁	16.3×25.9cm	1883	全州

墓誌의 主流을 이루고 있는 것은 長方形白磁形으로 볼 수 있겠다. 그것에는 주로 陰刻文이나 鐵書文 또는 回青色 顔料로 墓誌銘이 錫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傳統的인 李朝時代의 墓誌는 高麗時代以來 使用되어 오던 長方形의 烏石이나 粘板岩製 板石 위에 陰刻된 銘文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紹介한 墓誌를 다시 옮겨 보면 다음 表와 같이 되겠다.

註

- ① 崔夢龍, 『全南地方所在의 李朝墓誌』古文化十五輯, 一九七六(未刊)
- ② 全鑿鈞, 『壺型墓誌』考古美術 一卷五號 一九六一年一
- ③ 林憲眞, 『大接型誌石』考古美術二卷一號 一九六二年一
- ④ 鄭良謨, 『安宗茂의 白磁墓誌』考古美術四卷二號, 一九六四年二
- ⑤ 鄭良謨, 『金在仁白磁墓誌』考古美術 四卷五號 一九六四年五
- ⑥ 鄭良謨, 『金景漢白磁墓誌』考古美術
- ⑦ 崔夢龍, 『全南의 古蹟(十九)』光州經濟四七號 一九七五年六 p.p. 二十四
- ⑧ 李朝 英祖時 만들어진 『輿地圖書』光州牧條에는 黃界里가 아니라 黃界面으로 되어 있어 後日(面)으로 昇格한 것 같다.
- ⑨ 尹孝孫은 世宗 十三年(西紀 一四三二)에 나서 燕山君 九年에 卒한 李朝의 名臣으로 字는 有慶, 號는 楸溪로 最後의 官職이 成宗時 漢城判尹左參贊인데, 死後 諡號를 文孝公으로 禮葬되고 아울러 南原 方山書院에 配享되었다.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一九六七年尹孝孫條) 그리고 孝孫의 墓前石燈 및 神道碑(正德十四年乙卯三月, 一五一九年)는 寶物 五八四號로 指定되어 있다(秦弘燮, 『特殊形式의 石碑一例』東洋學第五輯 一九七五年 p.p. 四三三~四三三二)
- ⑩ 最近 鐵砂로 쓴 白磁墓誌로는 一七六四年(英祖 四〇年, 甲申)에 만든 權宜 恢長方形(二·七×十四·九cm 두께 二·一cm)墓誌 十枚가 있다.
- ⑪ 鄭良謨編 『李朝陶磁』韓國美術全集一〇. 同和出版公社 一九七三年 P. 七
- ⑫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一九六七年 p.p. 二一八

⑬ 慶州는 一八九五年(高宗 三十二年)에 郡이 되었다(韓國學大百科事典 ① 乙酉文化社 一九七二年 p. 十一)

⑭ 權孝은 高麗功臣으로 安東權氏의 始祖가 되었으며, 本姓은 金이다. 九三〇年(太祖 十三年) 고려가 高麗에서 後百濟軍을 무찌르는데 加담하여 功을 세우고 이에 太祖로부터 權氏姓을 하사받고 大相벼슬에 올랐다. (韓國人名大事典 p. 六一)

⑮ 訓導는 朝鮮王朝 때 典醫監, 觀象監, 司譯院 및 五百戶 이상의 고을에 드었던 終九品の 官職이다.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전임강사)